

2025년 온동네돌봄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2025. 12.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1
I-1. 온동네돌봄연구회 소개	3
I-2. 2025년 연구활동개요	5
I-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7
 II. 연구활동별 보고	 9
II-1. 연구용역 추진	11
II-2. 전문가 간담회	21
II-3. 현장 방문	40
 III. 활동후기	 45
 IV. 언론보도	 55



I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5년 온동네돌봄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I -1. 온동네돌봄연구회 소개	3
I -2. 2025년 연구활동개요	5
I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7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I - 1. 온동네돌봄연구회 소개

- 단 체 명 : 온동네돌봄연구회
- 소속의원 : 김규진(대표), 이종석(간사), 박경희
- 관련근거 :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 연구활동계획

단 체 명	온동네돌봄연구회
연구내용	주제 서대문지역 특성에 학습돌봄정책 및 입법 과제 연구
	목적 서대문구 맞춤형 학습돌봄정책을 연구 및 논의하여 의정활동 중점 과제 도출
연구활동기간	2025년 3월 1일 ~ 2025년 12월 30일
총 액	금3,000,000원(금삼천만원)
연 구 활동비 예산안	산출내역 • 행사비: 1,500,000원 • 전문가 자문비: 400,000원 • 우수사례 견학비: 600,000원 • 활동보고서 제본비: 500,000원

■ 설립목적

- 서대문구는 출산률 0.57명으로 인구가 지속감소하는 지역으로, 정주민구 및 젊은 경제활동 인구 유입을 위한 돌봄 전략이 절실한 상황임
- 맞벌이 부부 증가로 아동 돌봄정책은 가장 중요한 근로자 지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인구를 유입한 자치구 사례도 있음(중구)
- 이에 온동네돌봄연구회를 신설하여, 서대문구청-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미래 구민을 돌보는 '온동네돌봄'체계를 연구하여 정책 중점과제를 도출함

■ 연구주제

- 서대문구지역 특성에 맞는 아동 학습 및 돌봄 정책 및 입법 과제 연구

■ 연구목적

- 서대문구는 출산률 0.57명으로 인구가 지속감소하는 지역으로, 정주민구 및 젊은 경제활동 인구 유입을 위한 전략으로써 돌봄정책이 필요함
- 현재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의 '초등돌봄지원계획'은 내용이 키움센터 운영에만 한정되어 있고 현재 신설된 키움센터는 모두 인근 돌봄수요기반이 아닌, 키움센터 설립 가능 공간 확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정책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임
- '온동네돌봄'은 기존 아동돌봄을 담당했던 초등학교와 신설된 키움센터를 포함하여 자치구 내의 다양한 공간 및 학습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에, 서대문구 관내에서 돌봄 운영이 가능한 자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교육 및 일반자치의 통합적 관점에서 양육하며 일하는 구민의 선택지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기획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추진함

I - 2. 2025년 연구활동개요

■ 연구계획

- 서대문구 돌봄 수요 및 활용 자원 기초조사를 추진하여 현황 파악
- 타지역 선진 사례 견학 또는 강의 개최를 통하여 대안 모색
- 토론회 개최로 지자체의 역할에 관한 의견 청취
- 교육 및 아동청소년 전문 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서대문구 맞춤형 돌봄 과제 도출

■ 세부 활동계획

- 온동네돌봄 포럼 개최
 - (주제) 서대문구 온동네돌봄을 위한 대안 모색
 - (내용) 서대문구 학교교육경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 학교(교육청)와 지자체(키움센터, 어린이공원, 도서관, 청소년시설)가 함께 하는 아동 돌봄 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 (기간) 2025년 3월 ~ 9월
- 돌봄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용역 추진
 - (주제) 서대문구 맞춤형 아동 돌봄 정책 과제 도출
 - (내용) 서대문구 기초조사, 선진사례 견학 추진 및 정책보고서 작성
 - (기간) 2025년 3월 중순 ~ 10월 중순

월간 계획

일정	활동 내용
3월	온동네돌봄정책연구회 활동 관련 사전준비
3월 ~ 9월	온동네돌봄 포럼 준비 및 개최 돌봄 기초조사, 선진사례 견학 추진
6월 ~11월	정책연구용역 추진
12월	2025년 연구결과보고회, 간담회

I -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 연구활동비 책정금액 : 금2,426,000원
- 지출금액 : 금2,423,100원(집행률 100%)
- 지출내역

연번	사용일	적요	사용처	지출금액	지출구분
1	7.18.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다과비	대흥떡집	80,000원	다과비
2	7.18.	1차 전문가 간담회 강의 수당	권성연	360,000원	강의 수당
3	7.18.	1차 전문가 간담회 다과비	대흥떡집	120,000원	다과비
4	7.18.	1차 전문가 간담회 다과비	GS25 서대문구청점	59,100원	다과비
5	10.16.	어린이식당 활동가 대회 참석 후 간담회	로덴드론	120,000원	간담회비
6	11.04.	2차 전문가 간담회 강의 수당	박미향	360,000원	강의 수당
7	11.04.	2차 전문가 간담회 다과비	프홍사	200,000원	다과비
8	12.04.	강동어린이식당 견한 후 간담회	로덴드론	120,000원	간담회비
9	12.08.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다과비	알레스구떼	100,000원	다과비
10	12.08.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후 간담회	민스키친 연희점	234,000원	간담회비
11	12.16.	연구활동보고서 제작비	경성문화사	670,000원	인쇄비
합 계				2,423,100원	



II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5년 온동네돌봄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연구활동별 보고

II-1. 연구용역 추진	11
II-2. 전문가 간담회	21
II-3. 현장 방문	40

II

연구활동별 보고

II- 1. 연구용역 추진

서대문구 온동네 돌봄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 계약업체: 주식회사 지도상절

■ 계약기간: 2025.7.9.(수) ~ 2026.1.4.(일)

■ 소요예산: 금14,600,000원(일천사백육십만원)

■ 과업배경

- 서대문구가 추진해 온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주민(정책 당사자)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정책적 미비점을 보완·발전해 나아갈 필요성 대두
- ‘우리동네 키움센터’ 중심의 서대문구 방과후 초등 돌봄 체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기가 필요

■ 과업목적

- 서대문구 (초등)돌봄 수요 및 자원 조사를 통한 정보의 현행화
-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
- 서대문구 맞춤형 (초등)돌봄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내용적 범위 : 서대문구 초등 돌봄 정책 및 미래교육지구 사업
- 연구방법
 - 정책 당사자 그룹에 대한 인터뷰(FGI)
 - 서대문구 (초등)돌봄 자원 조사
 - 타 지역 / 해외 우수사례 검토 및 현장 답사
 -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공론 조사

■ 과업의 대상

- 정책의 대상 : 서대문구 (초등)돌봄 정책 및 미래교육지구 사업
- 연구 주체 : 주식회사 지도상줄 (연구팀) / 서대문구의회 운동네돌봄연구회 소속 의원 (발주부서로서 참여)
- 참여 대상 : 해당 정책의 당사자 주민 또는 관련자

■ 과업 세부내용

- 서대문구 (초등)돌봄 자원 조사
 - 관내 초등 대상 돌봄 자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보를 현행화고 관련 내용을 자료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서대문구 (초등)돌봄 정책의 당사자 그룹 인터뷰
 - 관내 초등 대상 돌봄 정책의 당사자 그룹 인터뷰를 설계하여야 한다.
 - 연구 목적에 적합한 그룹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고, 일정을 조정하여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야 한다. (최소 5인 이상)
 - 원활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 섭외 및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고 자료화하여야 한다.

- (초등)돌봄 정책 관련 타 지역 / 해외 사례조사 및 분석
 - 타 지방자치단체나 해외 국가가 추진 중인 초등 대상 돌봄 정책의 사례를 조사하여 자료화 하여야 한다.
 - 각 사례의 우수한 점, 미흡한 점, 시사점 및 참조점 등을 분석하여 자료화하여야 한다.
 -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초등)돌봄 정책 관련 우수사례 현장 답사
 - 간담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지에 대한 현장 답사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 답사 계획에는 우수사례지에 대한 방문일정, 관계자 섭외, 전담인력 배치 및 안전계획 수립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 답사에 필요한 장비 및 서비스 등은 계약당사자가 전담하여 확보·배치·운영하여야 한다.
 - 현장 답사에 대한 사진, 영상, 발언 기록을 남기고 이를 아카이빙하여야 한다.
- 전문가 섭외 및 정책 포럼 운영
 - 초등 대상 돌봄 정책 관련 전문가 정책 포럼을 계획하여야 한다.
 - 연구회와 협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3인 이상)하여야 한다.
 - 섭외된 전문가의 소견을 정리하여 자료집을 제작하여야 한다.
 - 포럼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은 계약당사자가 전담하여 확보·배치·운영하여야 한다.
 - 포럼에 대한 사진, 영상, 발언 기록을 남기고 이를 아카이빙하여야 한다.

착수보고회

- 일시: 2025. 7. 18.(금), 14:00~15:00
- 장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자: 총 9명

연구단체	김규진(대표), 박경희
연구진	김남식 연구책임자, 김찬호 연구보조원, 박석준 매니저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장 및 정책지원관 등 4명

■ 보고내용

연구내용	• 서대문구 돌봄 수요 및 자원 조사를 통한 정보의 현행화 •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발전 방향 모색 • 서대문구 맞춤형 돌봄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연구방법	• 정책 당사자 그룹에 대한 인터뷰(FGI) • 서대문구 (초등)돌봄 자원 조사 • 중구, 종로, 노원, 용산구 등 타지역 분석 및 현장 탐방 • 일본, 북유럽 등 해외 사례 분석 •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공론 조사

■ 주요 의견

연구내용에 대한 의견	• 지역별 인구변화, 사교육 기관 분포 등의 특징에 따른 돌봄 수요 분석 필요 • 돌봄 서비스의 수혜집단과 비수혜 집단, 권역 등을 고려하여 인터뷰 대상자 선정할 것을 당부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	• 의회 일정을 고려하여, 중간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 주요 연구 결과가 11월 초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진행사진



중간보고회(서면)

■ 진행방법

- 착수보고회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연구용역 중간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함
- 연구진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대해 연구회 소속 의원이 검토의견 제시
-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진에 전달

■ 의견 수렴기간 : 2025.10.1.(수) ~ 10.17.(금)

■ 대상 : 김규진 의원(대표), 이종석 의원(간사), 박경희 의원

■ 보고내용

서대문구 돌봄자원 분석	• 서대문구의 돌봄 관련 기관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양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5-9세 인구 차원에서는 양호한 수준 • 다만, 기관 유형별로 확인해봤을 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전무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 기관을 중심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됨 • 자치구 소득 수준과 5-9세 인구비중을 고려하여 평가했을 때, 돌봄 기관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자치구 수준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향후 과제	• 서대문구는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양적인 차원에서 양호한 수준으로 돌봄기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나 운영 차원의 질과 수혜자의 인식을 확인하여 실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동별로 세부적인 돌봄 자원현황을 비교하여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주요 의견

돌봄 자원의 지도화, 동별 분석 필요	서대문구 관내 학교,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돌봄 자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화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동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의견 수렴 다각화	- FGI 또는 포럼 등을 활용하여 돌봄 관련 행위자의 의견을 더 청취하여 어떤 식의 돌봄 모델을 원하는지 돌봄의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학부모/수혜자/보호자를 중심으로 심층 면담하여 돌봄 수요에 대한 의견을 깊이 있게 청취해야 함 - 서대문구 소속 센터 방문하여 현재 연구결과(특히 자원현황)에 대한 의견 청취, 더 필요한 자원이 있는지, 애로사항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면 좋겠음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현장답사 시, 서대문구와 유사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야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타당한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외 사례의 함의점을 국내 타 지역 사례, 연구 결과와 잘 조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를 바람

최종보고회

- 일시: 2025. 12. 8.(월), 9:30 ~ 11:30
- 장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자: 총 9명

연구단체	김규진(대표), 박경희
연구진	김남식 연구책임자, 박석준 매니저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장 및 정책지원관 등 6명

■ 보고내용

국내외 사례 분석	• [서울시 5곳 기초지자체 사례] 그동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로 전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공통적인 문제 • [해외 사례 분석] 일본의 양적 확대 방식은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주도함. 핀란드는 일본보다는 교육 측면에 초점. 인구가 적고 예산 투입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음 • [강동구 어린이식당 현장답사]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방과 후 저녁 돌봄 공백을 메우는데 집중하고 있었고 이용 대상을 만 6세~15세까지 폭넓게 정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임
서대문구의 정책적 상황 분석	• [서대문구 상황 분석] 소득 수준 대비 예산 투입은 많지만 돌봄 시설은 서울시 평균보다 부족함. 키움센터, 키즈카페에 치중하는 반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확충이 시급함 • [서대문구 키움센터 관계자 및 이용 학부모 FGI] △거버넌스 통합(교육부와 지자체 이원화 극복), △단순 보호를 넘어 통합케어 필요(아동지원+식식+학습),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끊임 없는 서비스 선호, △가용인력의 절대적 부족 문제 극복 필요
전문가 정책 포럼 및 결론 도출	• [전문가 정책 포럼]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하여 배타성에서 공동책임으로 나아가야 함 • [결론] 운영 체계성, 이용의 유연성, 재정의 효율성이 필요. 학교는 학교만의 돌봄을 하되, 지자체는 통합돌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주요 의견

연구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과업지시서에 따라 국내외 사례 분석, 서대문구 상황 분석, 서대문구 키움센터 관계자 및 이용 학부모 FGI, 우수 사례지역 답사, 전문가 정책 포럼을 충실하게 수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했음
구정에 반영할 점	- 평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필요. 학교를 개방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음 - 최근 데이케어센터를 조성하는 예산안 38억이 올라왔음. 최근 은평구에 데이케어센터가 많이 생겨서 서울 서북3구(은평·마포·서대문구)는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음. 그 예산을 2억씩 쪼개서 어린이식당을 만들면 가성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음 - 돌봄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기존의 셔틀버스를 돌봄 셔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돌봄 정책의 나아갈 방향	- 정책 참여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성은 필요함.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가 고민해야 할 지점. 시민의 선의에 기대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 인구감소 추세, 장기적으로는 분절돼있는 돌봄 영역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특수아동 돌봄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의 밀접한 협의 필요

■ 진행사진



II- 2. 전문가 간담회

1차 전문가 간담회

- 일시: 2025. 7. 18.(금) 15:00~17:00
- 장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주제: 온동네 돌봄 정책 설계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돌봄센터와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
- 강사: 권성연 센터장(양천구 6호점 우리동네기움센터)
- 토론자
 - 황선미 회장(서울홍연초등학교 학부모회)
 - 권은혜 회장(서울연희초등학교 학부모회)
 - 박승란 대표(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부모리더)
 - 정선희 센터장(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이미정 이사(서울지역사회교육협의회)
- 참석자: 20명 내외
 - 온동네돌봄연구회 소속의원, 연구용역 관계자, 관련 전문가, 정책지원관 등
- 강의내용

권성연
센터장

-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놀이성'은 사회적 유능성과 적응력을 설명하는 핵심
- 놀이를 통해 또래 관계, 사회성, 자기 조절력 발달
- 아이들은 '관계의 존재'이자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임
- 지역사회는 교육의 배경이 아닌, 아이들의 삶의 실질적 장
- 교육기관은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거점 기능

■ 지정토론

정선희 센터장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적어짐. 교우관계가 어려우면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작은 성취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성을 끌어낼 수 있음
이미정 이사	•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은 매월 <락앤롤 파티>를 개최하여 컴퓨터 게임과 개인적인 놀이에만 몰입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를 제공
황선미 학부모 회장	•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놀 기회를 탐색한다는 점에 공감 • 요즘 공기놀이가 유행하는데, 신체활동이 사회성 발달에 중요
권은혜 학부모회장	• 학교에서 사소한 일이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목격 • 강박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방안 마련 필요
박승란 학부모리더	• 타인의 거부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 폭력 감수성이 높아졌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다른 가치보다 더 중요

■ 진행사진



■ [참고] 발표자료

돌봄센터와 중간조직의 역할

발표자: 권성연 (양천구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센터장)

I. 서론 : 전이기 아동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며

2024년 봄, 저는 26년간의 영유아 교육 경력을 바탕으로 초등돌봄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유아기와는 전혀 다른 생활리듬, 관계의 맥락, 정서적 풍경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의 삶은 제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아이들과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놀이와 관계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갈까?’

아동의 전이기(transition)는 단순한 교육단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리듬, 환경, 그리고 관계의 구조가 급격히 재구성되는 시기로 정의됩니다(Griebel & Niesel, 2009). 이 시기의 변화는 아동의 정체성 형성, 정서적 안정, 사회적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유아기에서 초등기로의 이행은 놀이 중심의 자율적 생활에서 성과와 규범 중심의 구조화된 환경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이는 아동에게 깊은 전환을 요구합니다(Hardy et al., 2017).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발표에서는 유아기에서 초등기, 나아가 청소년기로 이어지는 이행기의 아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돌봄기관과 지역사회(community)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사례를 통해 아이들의 삶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II. 이론적 배경 : 생태적 발달과 놀이성의 교육적 의미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발달 이론은 아동 발달을 미시체계(가족, 기관), 중간체계(기관-가정 상호작용), 외체계(지역사회), 거시체계(문화 및 정책)의 상호작용 속에서 설명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은 단지 교육기관 내부에서 완결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과 지역의 삶 속에서 비로소 확장되고 성숙됩니다. 또한 Dewey(1933)의 경험 중심 교육 철학은 교육을 삶의 일부로 보며, 아동이 주체적으로 탐색하는 환경과 경험을 통해 학습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과도 맞닿아 있으며, 해당 접근법은 아동을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핵심 기재로 제시합니다. 또한 아동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며 지역사회(community)와의 상호작용을 핵심 가치로 제시합니다.

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아동의 '놀이성(playfulness)'이 사회적 유능성과 적응력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놀이성은 단지 오락이 아니라, 아동이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으며 삶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역량입니다(Bundy, 1993). 놀이성은 자기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조절을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이며, 아동의 주도적 교육 실천의 기반이 됩니다.

김은숙(2009)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주요 호소 문제 중 사회성 및 또래 관계 문제는 32.1%로, 주의산만이나 학습 문제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는 놀이성 회복과 관계 확장이 아동기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Dewey는 놀이성을 자아 발달과 관련된 '마음의 열림(openness of mind)'으로 정의하며, 이는 아동의 내면적 태도와 사회성, 자기조절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Bronson(2000)과 노현미 외(2010) 등의 연구에서도 놀이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리더십, 친사회적 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아동을 고립된 학습자가 아닌 관계 속 존재로 보고, 놀이를 삶과 공동체 참여의 핵심 경험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철학을 공유합니다. 이 관점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실천 사례를 통해 이론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Ⅲ. 실천적 사례를 통해본 키움센터에서의 아이들의 삶

1. 실천 사례: 놀이의 회복과 마을과의 연계

초등돌봄 현장에서 아이들의 놀이를 회복하기 위한 키움센터의 첫 번째 실천은 익숙한 일상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작고 사소했습니다. 바로 '식사 전 동요 부르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유치해요." 라고 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이 짧은 시간은 아이들에게 아이다움과, 고요함, 정서적 안정을 주었습니다. 또한 집단 안에서의 소속감과 분위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기반 위에서, 우리는 저녁 시간의 자유로운 바깥놀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 후 1~2시간, 짧지만 소중한 여유가 생기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시간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다시 '놀이'라는 본연의 리듬으로 돌려놓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놀이는 피구공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작이 점차 지역의 또래 아이들, 학부모, 주민들까지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마을 놀이문화로 확장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놀이의 흐름을 주도하고 관계를 조직하는 주체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동자치회의를 통해 동네 친구들을 초대하여 ‘키움시네마’를 개최하고, 분필놀이로 시작된 활동은 ‘공터 그림그리기 대회’로, 일상 속 이야기들은 ‘파자마 파티’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매개로 지역사회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 놀이의 방법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공터에서 시작된 놀이는 마을 축제로 이어지며, 아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소속감과 공동체적 책임감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절기살이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담근 된장과 국간장, 딸기잼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떡과 산자를 빚어 마을 어르신들과 지역 관계자들을 찾아뵙며 인사와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요리, 경제, 관계 맺기, 예절, 나눔 등 삶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태도를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또한 판매를 통해 모은 기금을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연말 기부하였고, 이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인터뷰에 참여하여, 기부의 의미와 자신의 생각을 직접 말하며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 ‘왜 나누는가’를 사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서, 놀이하는 아이들이 다시 마을 속에 등장하는 교육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키움센터의 시도는 단절된 일상의 회복에서 출발하여,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삶이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음을 분명히 시사합니다.

이 흐름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발달 이론에서 강조하는 체계 간 상호작용(미시체계-중간체계-외체계)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아이들은 기관이라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라는 외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자신을 ‘살아 있는 존재’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Dewey의 ‘경험으로서의 교육’ 이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아이들은 실제 삶의 문제를 경험 속에서 해결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민주적 감수성과 주체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키움센터의 실천은 아이들의 삶이 교육의 외곽이 아닌 교육의 중심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놀이의 회복은 결국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이 함께 책임지고 구성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초등돌봄이 단순한 보호의 공간을 넘어, 아이들을 지역과 연결하고,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교육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실천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사례를 통해 본 교육 실천 원리와 실행 전략

앞서 소개한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삶을 존중하며 확장하기 위한 교육 실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들은 ‘관계의 존재’이자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입니다. 아이들을 돌봄의 수혜자로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능동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주체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은 ‘삶의 지속성’을 우선시해야 하며, 유아기, 초등기, 청소년기를 인위적으로 분절하지 않고, 아이들의 삶의 흐름과 경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성과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는 교육의 배경이 아닌, 아이들의 삶의 실질적 장(場)입니다. 교육기관은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거점으로 기능하며, 상호작용과 순환이 가능한 열린 구조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 원리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행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열린 경계의 공간 설계: 학교, 기관, 마을의 경계를 유연하게 열어,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물리적·심리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 ② 아이들 주도 프로그램 설계: 절기살이, 아동자치회의 등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자율성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합니다.
- ③ 지역 자원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지역 주민, 기관, 상점,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망을 평생시부터 유지하며, 프로그램과 일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 ④ 기록과 순환에 기반한 생태적 실천 구조 마련: 활동 과정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다음 활동의 기반으로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의 삶과 교육 실천이 순환적으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 ⑤ 유아-초등-지역 간의 연계성 강화: 유아기부터 초등기, 그리고 마을 자원으로의 연계를 통해 아이들의 삶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 있는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아이들이 삶의 주체로서 사회적 관계망 안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관이 더 이상 폐쇄된 공간이 아닌 공동체와 연결되는 매개로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국, 교육 프로그램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일상의 구조와 흐름이 곧 교육이며, 이를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의 삶은 단절이 아닌 ‘있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V. 결론 : 삶 중심 교육을 향한 전환

아이들의 삶은 더 이상 교육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만 정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놀이, 관계, 참여, 감각이 뿌리내리는 유아기에서 초등기로의 이행기는 아이들이 자아를 형성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결정적 시기이며, 이 시기의 교육은 단지 학습의 문제가 아닌 삶 자체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험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communitiy)라는 실제적 공간 속에서 더욱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생태적 교육 실천은 아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마을과 세계를 연결하는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세우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어른들의 인식 변화와 책임 있는 태도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이들의 놀이를 제약하는 사회적 시선과 제도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31조에서 보장하는 놀이권, 즉 아동이 충분한 여가와 놀이를 누릴 권리를 침해하며, 결국 아동의 삶의 확장과 발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놀 권리는 아이들의 기본권이며, 모든 어른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교육이 학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을 전체가 아이들의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키움센터에서 시작된 실천은 이러한 전환을 현실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지만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이 사례는 공동체 교육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며, 아이들의 삶을 존중하는 교육이 어떻게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이 실천은 특정 지역과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사례이기에 모든 환경에 즉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지역적 맥락에서의 실천을 축적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태적 접근은 전국의 키움센터는 물론, 돌봄기관과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충분히 응용 가능한 실천적 모델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결국 지역사회(communitiy) 전체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연속성에서 아이들의 교육은 특정 시기나 기관 안에 갇힌 활동이 아니라, 아이들의 전 생애를 존중하고 확장하는 사회적 실천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이들 중심의 생태적 교육 패러다임을 구체화하고,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삶터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적 실천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키는 일,
그것은 곧 우리 사회의 품격입니다.”**

2차 전문가 간담회

- 일시: 2025. 11. 4.(화) 10:00~12:00
- 장소: 행복이룸센터(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지하 1층)
- 주제: 온동네 돌봄 정책 설계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함께 가꾸어가는 교육공동체, 학부모의 역할
- 강사: 박미향 전 센터장(서울시학부모지원센터)
- 참석자: 20명 내외
 - 온동네돌봄연구회 소속의원, 연구용역 관계자, 관련 전문가, 정책지원관 등
- 강의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교육공동체의 의미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교육의 주체로 협력하는 공동체
학부모의 역할	• 교육의 공동 책임자로 참여 • 기후, 돌봄, 평등을 함께 실천하는 생활 주체 • 배움의 동반자로서의 학습자 역할 • 학교와 지역을 잇는 연결자(브릿지) • 민주시민으로서의 감시자이자 비전 제시자
바람직한 교육공동체의 조건	• 서로 신뢰하고 돌보는 관계 • 모두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구조 •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 • 학교와 지역이 연결된 생태계 • 지속될 수 있는 행정, 제도적 뒷받침

토론 및 질의응답

질의	응답
교사의 행동이 부당할 때, 해결 방법	•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 학생회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있음
과잉 반응하는 학부모에 대한 대처	• 가혹하게 행동하는 학부모는 학부모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음. 이러한 분들을 위한 교육도 있지만, 이분들의 특징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음
인권 존중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	• 학생들의 폭주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자율임 • 혁신학교에서는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생활 협약을 만들어서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 수 있음

진행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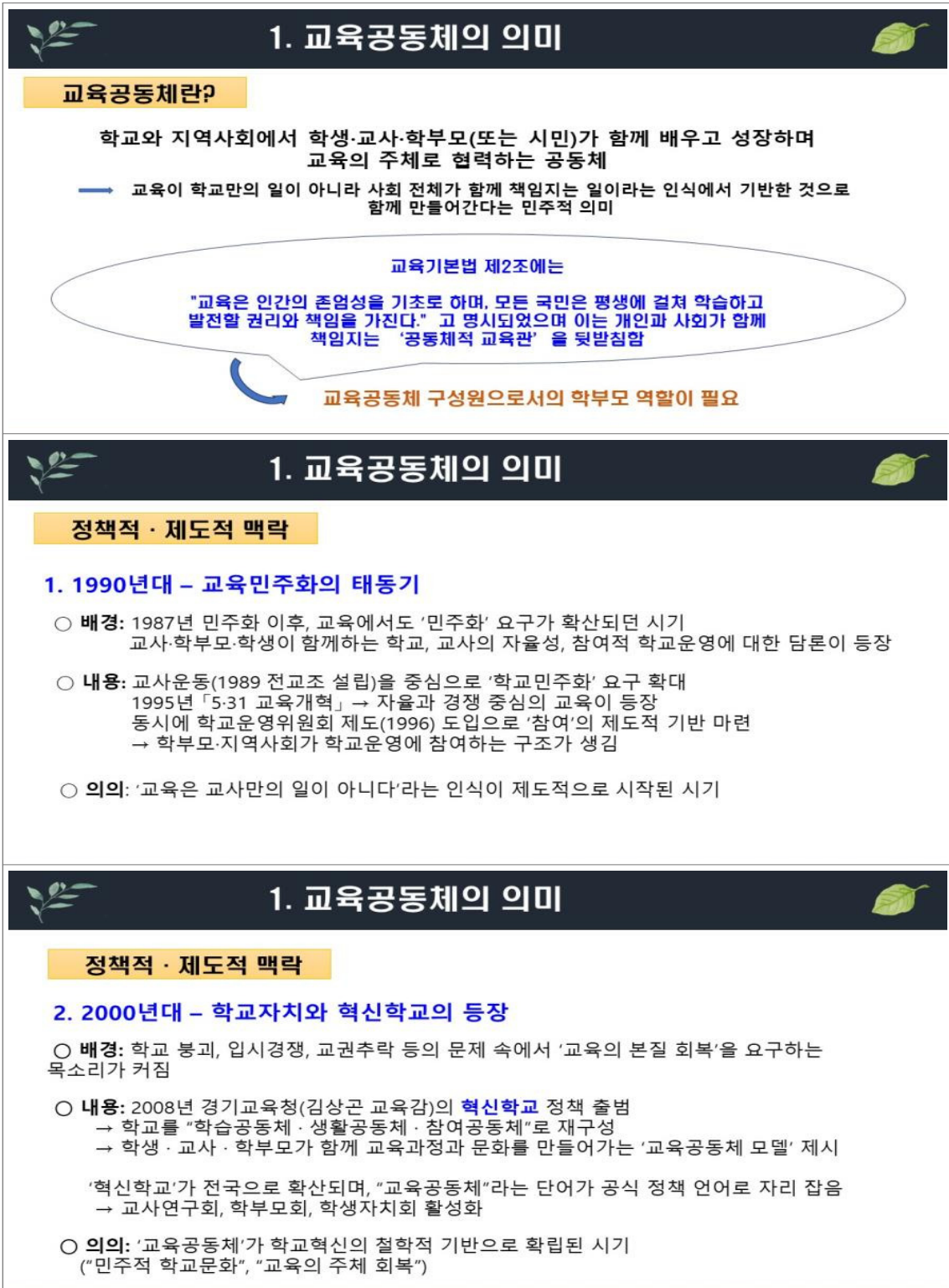
함께 가꾸는 교육공동체, 학부모의 역할

전)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장
현)관악교육공동체 모두 대표
현)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박 미 향



Contents

- 01 교육공동체 의미
- 02 학부모의 역할
- 03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란?
- 04 우리 함께 만들어보아요





1. 교육공동체의 의미



정책적 · 제도적 맥락

3. 2010년대 – ‘마을교육공동체’로의 확장

- 배경: 학교만으로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 확산
→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관점으로 확장
- 내용: 2014년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제정
(경기, 서울, 전북, 강원 등 선도)
지자체-교육청 협력 모델 등장 (예: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경기 꿈의학교, 충남행복교육지구)
“온마을이 학교다”라는 담론 등장
학교-지역-행정-시민단체가 함께 기획하는 ‘교육거버넌스’ 등장
→ 지역 주민,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이 교육의 주체로 참여가 가능해짐
- 의의: ‘교육공동체’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
→ ‘교육자치 + 지방분권 + 시민참여’의 새로운 연결고리 형성



1. 교육공동체의 의미



정책적 · 제도적 맥락

4. 2020년대 – 기후·돌봄·불평등 시대의 ‘확장된 교육공동체’

- 배경: 기후위기, 돌봄위기, 디지털 불평등 등으로 인해 교육이 단순한 학습 문제가 아니라 삶과 생태, 돌봄, 사회정의의 문제로 확장됨
- 내용: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기후정의교육, 돌봄교육, 교육복지 안전망 등과 결합
교육자치 + 사회적 돌봄체계 + 청소년 참여정책으로 연결
학교-지역-행정-시민단체가 함께 기획하는 ‘교육생태계 거버넌스’로 확장
(예: 서울형 교육자치구 협치, 경기형 교육협력지구 등)
- 의의: ‘교육공동체’가 더 이상 학교 단위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생태적·사회적 책임 공동체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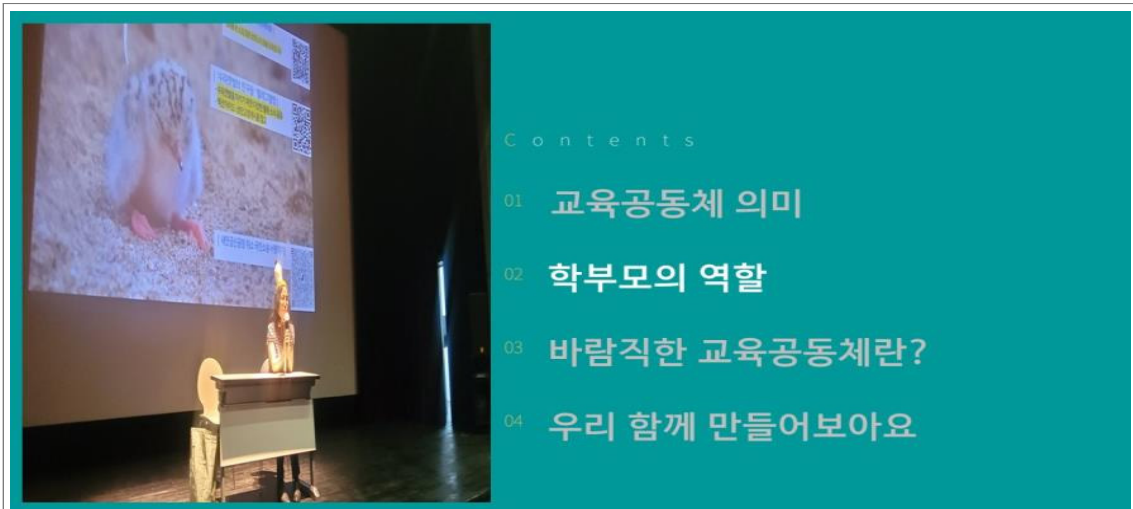


1. 교육공동체의 의미



정책적 · 제도적 맥락

명칭	주요주체		목표
학교교육공동체	학생·교사·학부모	민주적 학교문화, 협력적 관계	자율과 참여 중심 학교
지역(마을)교육공동체	주민·지자체·학교	지역 자원을 교육에 활용	교육의 사회적 책임 실현
국가 차원의 교육공동체	국민 전체	교육정책 참여, 사회적 연대	평생학습사회, 교육복지



2.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 정의

○ 조례에 근거한 학부모의 정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는 사람”

☞ 즉, 학부모는 단순히 학생을 돌보는 보호자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의 주체로 규정

○ 교육기본법 13조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학부모회)

2.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 세대 구분 참고로

명칭	출생년도	특징	비고
위대한 세대	1900~1924	1929년 대공황, 2차 세계대전, 1960년대 복구사업을 통해 미국을 세계 최대 강국을 만든 세대 - 베이비붐 세대 부모	
침묵 세대	1925~1945	전쟁 이후 이념논쟁때문에 목소리 내기를 주저한 세대 (전쟁 공포 속에서 보수성 강한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1946~1964	전후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세대 - 교육열 높고 투기 신봉 등 성공과 부를 갈망하는 세대	
X 세대	1965~1981	베이비 붐 세대 이후 서구에서 태어난 세대로 신세대를 열컬으며 무엇을 하는지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다양한 특징을 지닌 세대	이론율이 높아지면 열쇠를 잃고 다닌
밀레니얼 세대(Y세대)	1982~1990 중반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체제 전환으로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911테러, 베를린 장벽 붕괴, 6월 항쟁과 군사독재정권, 정보통신기술의 과도기 등)	새천년을 맞은 새로운 희망 세대
Z 세대	1990 중반 이후	디지털 매체의 영향을 받은 세대로 스마트 폰을 가까이 한 첫 세대	
@ 세대 (mz세대)	2011년 이후	완전한 디지털네이티브 세대	최근



2. 학부모의 역할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1. 교육의 '공동 책임자'로서의 참여 -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철학의 실천

○ 내용: 학교를 단순히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닌 **공동체의 장(場)**으로 인식

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회 · 교육자치 협의체에 적극 참여

교육정책, 교육환경 개선 논의에 학부모 시민으로서 목소리 내기

→ 학교와 갈등하는 '민원 주체'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자로 서기

○ 키워드: **#참여하는 학부모, #협력하는 시민**



2. 학부모의 역할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2. 기후·돌봄·평등을 함께 실천하는 생활 주체

○ 내용: 기후위기 대응 학부모 실천: 친환경 도시락, 에너지 절약, 플라스틱 줄이기 등

돌봄 공동체의 구성원: 마을 돌봄 공간, 방과후 마을학교 등 지역 협력

교육 불평등 완화: 학습격차나 문화체험의 기회를 이웃과 나누는 참여

→ '내 아이' 중심에서 '우리 아이들'로 시야를 확장

○ 키워드: **#가정의 실천이 곧 생태교육"**



2. 학부모의 역할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3. 배움의 동반자로서의 학습자 역할 학부모도 함께 배우는 존재

○ 내용: 평생학습 · 시민교육에 참여해 교육의 변화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

자녀의 학습을 '관리'가 아닌 '공감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

교육과정, 기후 · 시민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등 새로운 영역을 자녀와 함께 배우기

○ 키워드: **#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가족**



2. 학부모의 역할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4. 학교와 지역을 잇는 연결자 (브릿지)

- 내용: 지역의 마을교사,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단체와 교육협력의 매개자로 활동
학교 교육과정과 마을 자원을 연결하는 교육협력 활동가 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
지역의 '교육 거버넌스' (예: 교육협력지구,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에 참여
- 키워드: #학교와 마을을 잇는 다리



2. 학부모의 역할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5. 민주시민으로서의 감시자이자 비전 제시자

- 내용: 교육정책과 제도의 방향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지 감시
교육자치, 예산, 기후·돌봄 정책 등에서 시민적 의견 제시
아이들의 인권, 다양성, 기후정의 등의 가치를 지켜내는 시민교육 실천자
- 키워드: #공공성과 책임의 시민 주체



2. 학부모의 역할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역할	의미	구체적 실천
1. 공동책임자	교육의 주체로 참여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협치 기구 참여
2. 생활 실천가	기후·돌봄·평등 실천	가정 내 생태 실천, 돌봄공동체 참여
3. 학습자	함께 배우는 동반자	시민교육, 학부모 교육 참여
4. 연결자	학교-마을-지역을 잇는 다리	마을학교, 교육협력 활동
5. 감시자, 비전제시자	공공성 감시와 대안 제시	정책 참여, 교육자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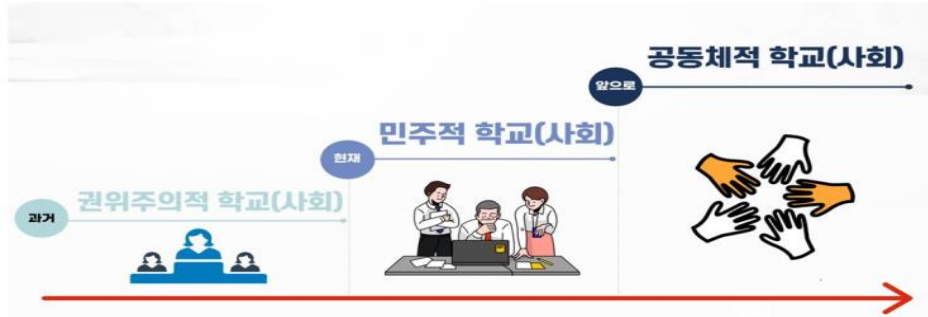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는 학교 혼자, 행정 혼자 만들 수 없음
학부모가 '시민으로서의 학부모'로 서는 순간, 교육은 생태계회복의 시작!!!!



2. 학부모의 역할



민주적 학교를 기반으로 공동체형 학교로 조희연 교육감 2024년 신년사



2.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 학교참여 유형

출처: 2023 김명희 학부모학교참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영역(수준)	학교참여유형	유형별 활동 예시
활동	교육(활동) 참여	I 교육활동: 일일교사, 특강, 보조교사 등 I 학부모 동아리 활동 I 학부모교육 및 프로그램, 학부모 연수 및 워크숍 등
	교육지원	I 교육지원: 수업자료 제작, 시험 감독, 독서지도, 체험활동 지원 등 I 학생 안전보호: 교통지도, 학교 폭력, 학교 폭력 예방, 학교청결, 급식 도우미 등
	소통(상담)	I 공식적 소통: 학부모 상담 주간 참여, 공개수업 참여 등 I 비공식 소통: 자녀 관련 개별 상담 및 문의
	평가 및 의사결정	I 학교(교육) 만족도 조사, 교원평가 I 학교운영(경영) 관련 의사결정 I 교육(정책) 모니터링
조직	조직 가입	I 공식조직: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 등 I 비공식 모임: 학급 모임, 소규모 학부모 모임 등



Contents

- 01 교육공동체 의미
- 02 학부모의 역할
- 03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란?
- 04 우리 함께 만들어보아요



3.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란?



“함께 믿고 + 함께 배우며 + 함께 결정하고 + 함께 지속하는 관계

1. 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 ▽ 교육공동체는 학교만의 일이 아님
- ▽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책임지는 관계망
- ▽ 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교육의 방향을 함께 정하고, 함께 배우며, 함께 실천

2. 왜 교육공동체가 중요한가?

- ▽ 오늘날의 교육은 성적 중심에서 벗어나,
- ▽ 인권·생태·돌봄·협력 등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학교 혼자서는 한계가 있음
- ▽ 학교와 마을,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



3.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란?



바람직한 교육공동체의 조건

- ① **서로 신뢰하고 돌보는 관계:** 교사·학부모·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믿는 문화 조성
/ 비난보다는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해결
➡ “우리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
- ② **같은 방향과 가치 공유:** 공동체의 교육 철학과 목표를 함께 세우기
예: “모든 아이가 존중받는 학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교육” 등
➡ 함께 가는 길에는 하나의 나침반이 필요함
- ③ **모두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구조:** 교사·학생·학부모가 의사결정에 실제로 참여
➡ ‘정해진 대로 따르는 참여’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참여’



3.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란?



바람직한 교육공동체의 조건

- ④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서로 배우는 학습 공동체
➡ 가르치는 사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배우는 사람되기
- ⑤ **학교와 지역이 연결된 생태계:** 학교는 마을과 연결
➡ “온 마을이 아이의 학교”
- ⑥ **지속될 수 있는 행정·제도적 뒷받침:** 교육청과 지자체가 예산, 인력, 제도를 지원
➡ 사람의 뜻 + 제도의 힘이 함께할 때 지속가능한 공동체



Contents

- 01 교육공동체 의미
- 02 학부모의 역할
- 03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란?
- 04 우리 함께 만들어보아요

4. 우리 함께 만들어보아요(혁신교육지구)

강북혁신교육지구 학부모가 만드는 창의한마당

- 강북구에서 교육주체인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학생 성장을 위한 학교별 특색 있는 창의한마당 행사를 기획 운영하고 있음



구로혁신교육지구 학부모문과 운영

- 구로구에서는 52대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학폭위협의회, 학부모네트워크를 주체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 사업을 통하여 학부모 역량강화에 기여함



강남서초혁신교육지구 달달한 만남, 학부모 연수

- 강남, 서초구에서 학부모 교육 역량 강화 및 관점 제고를 위해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4. 우리 함께 만들어보아요(서울학부모지원센터)



■ [참고] 행사 포스터

[온동네돌봄연구회] 정책 설계를 위한 간담회

함께 가꾸어가는 교육공동체, 학부모의 역할

✓ 일시 : 2025.11.4.(화) 오전 10시

✓ 장소 : 서대문행복이름센터(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지하1층)



위치 안내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지하 1층 <서대문행복이름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지하 1층
지하철+마을버스 이용 시	3호선 홍제역 3번 출구 : [서대문10] 마을버스 탑승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하차 2호선 신촌역 3,4번 출구 : [서대문03] 마을버스 탑승 -> '홍은2동주민센터' 하차 -> 도보 약 100m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건물 내 이동 안내	GATE 3 진입 시 : 엘리베이터로 지하 1층 이동 GATE 6 진입 시 : 직진 시 '서대문행복이름센터' 간판 및 배너 보임
주차 안내	문화체육회관 주차장 이용 가능(출차 전 안내 데스크 방문 등록)

II-3. 현장 방문

어린이식당 활동가 대회

- 일 시: 2025. 10. 16.(목) 10:30~13:30
- 장 소: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 주 제: 재난의 시대, 어린이식당이 만드는 사회적 연결
- 참 석 자: 총 4명
 - 김규진 의원, 연구용역 관계자(3명)

■ 프로그램

오프닝	“만남과 인사”
1부	[발제, 질의응답] “밥이 주는 연결의 힘! 어린이 식당” - 일본, 도봉1동, 방학2동, 공릉동 사례 발표
2부	[모듬별 대화] “어린이식당을 통한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
3부	“둘러앉는 식탁”

■ 어린이식당의 의미

- 방과 후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맞벌이 가구, 저소득층, 조손 가구, 다자녀가구 어린이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사용하여 건강한 식사와 안전한 돌봄 제공

■ 사례 발표

● 일본

- 어린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관계를 구축하고 가정 내에서 충족되지 않는 식생활과 영양 문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됐음. 현재는 일본 전역 9,200여곳으로 확산됨

- 도쿄 분교구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고자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며, 고향납세 기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함

● 도봉1동

- 혁신교육지구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식당 사업을 시작함.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의미가 있음

● 방학2동

- 밥심은 고립을 넘어서는 힘이 된다는 생각에서 어린이식당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인정이 넘치고 더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자 함

● 공릉동

- 어른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공터(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안에 있는 작은숲(2층 로비)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초대하여 식사하고 대화함
- 어린이와 어른이 만난다는 의미에서 ‘작은숲 어린이 식당’이라고 명명함
- 청소년들이 봉사자로 참여하여 테이블매니저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호혜적 관계를 배울 수 있음

■ 시사점

-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생 자살 시도가 급증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회복을 건강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진행사진



■ [참고] 행사 포스터

— 2025년 어린이식당 활동가대회 —

재난의 시대,
어린이식당이 만드는 사회적 연결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층 폴짝

2025. 10. 16. Thu. 10:30-13:30

지역사회 구성원의 연결고리 "어린이식당 운동"에 관심을 지닌
활동가,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프닝 (10:30-10:40) "만남과 인사"

1부 (10:40-11:30) [발제, 질의·응답] "밥이 주는 연결의 힘! 어린이식당"

- 일본 아인이식당 이야기 / 일본 NPO법인 무스비에 (전일본 아인이식당 지원 센터) 이사(홍보차장) 다무리 미사리 에 "은근한 참여"
- 도봉1동 청소년 공동 초록을 청소년마음식당 이야기 / 강영에 대표(사단법인 마음함께들)
- 방학2동 청소년마음식당 밥먹go 이야기 / 성자운 이사장(도담마을사회적협동조합)
- 공동음식당과 공동 중심으로 펼쳐지는 "아인이식당 작은숲" 이야기 / 조재희 대표(느그마음)
- 일본 아인이식당 방문 보고(다르니키) Niko Niko, 아인이식당 5대 원칙 소개) / 이승훈 대표(공릉청소년문화정비센터)

2부 (11:40-12:30) [모둠별 대화] "어린이식당을 통한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

3부 (12:40-13:30) "둘러앉는 식탁"

참가 신청 [문의]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온라인) ☎070-8796-6936



지원

재단법인
공공삼생연대기금

노원시민대학



사랑의열매
—— 사랑에 힘입어 모두가

강동어린이식당

■ 일 시: 2025. 12. 4.(목) 16:00

■ 장 소: 강동어린이식당

■ 참석대상: 김규진 의원, 연구용역 관계자(3명)

■ 위치 및 규모

- 강동구 구천면로 321, 2층에 위치하며 약 40평 규모로 조성

■ 운영 시간

- 평일 오후 4시~ 8시, 방과 후 저녁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

■ 대상 및 정원

- 강동구 거주 만 6세~15세 아동(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맞벌이, 다문화 가정 아동까지 2순위로 포괄 (30명)

■ 식단 및 가격

- 영양사가 설계한 균형 잡힌 석식을 1식 2,500원에 제공. 저소득층은 꿈나무카드 사용 가능하며, 일반 가정 아동도 이용 가능하여 낙인 희석

■ 프로그램

- 식사 후에는 돌봄 선생님의 지도하에 보드게임, 독서, 만들기 수업 등이 진행, '휴대폰 사용 금지' 규칙을 통해 또래와 상호작용하도록 사회성 함양 목표 설정

■ 지역 연계

- 비운영 시간에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대관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일자리 부서 및 교육 부서와 연계하여 재능 기부 특강 등을 운영

■ 진행사진





III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5년 온동네돌봄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활동후기

활동후기

돌봄의 현장에서 답을 찾다

김규진 | 의원



온동네돌봄연구회의 활동은 ‘돌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이 실제로 누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연구회 활동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지점은 책상 위의 정책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돌봄의 당사자와 그 공간을 직접 마주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 돌봄 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안의 방향 또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간담회는 돌봄을 단순한 보호나 시설 제공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아이들의 삶과 관계를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라는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오신 돌봄 실무자, 학부모,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발언은 행정 문서만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돌봄의 수혜 대상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주체이며, 놀이와 식사, 대화와 휴식이 분절되지 않을 때 비로소 건강한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돌봄센터와 지역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놀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아이들을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돌봄 실천 사례들은 돌봄 정책이 ‘통제’나 ‘관리’가 아닌 ‘신뢰’와 ‘연결’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현재 서대문구 돌봄 정책이 시설 중심, 시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학부모의 역할과 교육공동체의 의미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돌봄 정책이 행정의 책임으로만 남을 경우 오히려 갈등과 불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부모를 단순한 민원 제기 주체가 아닌 교육의 공동 책임자로 인식하고, 학교·지역·지자체를 잇는 연결 주체로 세울 때 돌봄은 보다 지속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헌신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와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은 문제의식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어린이식당 활동가 대회와 강동어린이식당 방문을 통해, 서대문구 돌봄 정책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공백이 바로 ‘방과 후 저녁 시간대’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이어지는 돌봄의 공백은 학부모에게는 불안으로, 아이들에게는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함께 먹는 밥’은 단순한 급식을 넘어, 돌봄과 관계, 안전이 결합된 중요한 사회적 기능임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동어린이식당 사례는 고비용의 대규모 시설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운영 방식과 정책 우선순위의 전환만으로 돌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녁 돌봄과 식사를 결합하고, 이용 대상을 보편적으로 설정하여 낙인 효과를 최소화한 점은 서대문구 돌봄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특히 기존에 계획된 대규모 시설 예산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역 곳곳에 생활밀착형 돌봄 거점을 조성하는 방식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연구회 활동을 통해 분명한 점은, 돌봄 정책의 성패가 새로운 사업의 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시간표와 주민의 삶의 흐름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간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공간에서, 끊임 없이 이어지는 돌봄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분절을 넘어서는 통합적 시각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온동네돌봄연구회의 활동은 하나의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 서대문구 돌봄 정책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들은 목소리와 확인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의회는 앞으로도 예산과 조례,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돌봄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돌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며, 아이들의 일상이 곧 서대문구의 미래라는 점을 깊이 새기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서대문형 ‘저녁 돌봄’을 시작하며

이종석 | 의원



1. ‘밥’은 곧 ‘돌봄’입니다: 연구를 시작하며

한국 사람에게 “밥 먹었니?”라는 인사는 단순한 안부를 넘어, “당신의 삶이 안녕한가”를 묻는 가장 따뜻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온동네돌봄연구회」의 간사로서 활동하며 제가 마주한 화두는 결국 ‘밥’과 ‘시간’, 그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거철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을 구호처럼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구호 뒤편, 우리 아이들의 실제 삶은 어떠했습니까? 맞벌이 부모님이 퇴근하기 전까지, 학원 가방을 메고 거리를 배회하거나 편의점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혼밥’이 아이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건물을 높게 짓고 예산을 쏟아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장 외로울 때 곁에 있어 주는 것’, ‘가장 배고플 때 따뜻한 밥 한 끼를 편안하게 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돌봄의 본질이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이러한 본질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여, 화려한

치적 쌓기용 사업이 아닌 아이들의 피부에 와닿는 진짜 정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2. 한계에 부딪힌 행정, ‘교육공동체’에서 길을 찾다

연구 활동 초기에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는 제게 행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뼈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돌봄을 구청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서비스’로만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민원인’으로, 행정은 이를 방어하는 ‘공급자’로 대립하며 갈등과 불신만 키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것은, 돌봄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학부모를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내 아이와 이웃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교육공동체의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이 아닌 가슴으로 배웠습니다.

3. 가장 취약한 고리, ‘저녁 7시의 공백’을 목격하다

책상 머리에서는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현장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연구회가 현장을 누비며 확인한 서대문구 돌봄 정책의 가장 아픈 손가락은 바로 ‘오후 4시 이후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돌봄이 끝난 후부터 부모님이 퇴근해 돌아오는 저녁 7~8시까지, 이른바 ‘돌봄의 보릿고개’ 구간에 우리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방문한 강동어린이식당에서의 경험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는 시혜적인 급식소가 아니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와서 친구들과 어울려 갓 지은 밥을 먹는, 마을의 사랑방이자 놀이터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낙인효과(Stigma)’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특정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곳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은 그곳을 외면합니다. 강동구의 사례는 ‘보편적 이용’을 통해 아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자연스럽게 돌봄과 안전 관리까지 해결하는 묘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먹는 밥’이 아이들에게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은 그 어떤 수억 원짜리 교육 프로그램보다 강력한 치유이자 교육이었습니다.

4. ‘시설’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은 “공간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센터를 짓는 하드웨어 확충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자 탁상행정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는 수십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지 않아도, 기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운영 방식과 정책의 우선순위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돌봄 모델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들을 맞이할 따뜻한 ‘사람’과 ‘콘텐츠’입니다. 이제는 시설 중심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돌봄 체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5. 맺음말: 서대문형 ‘저녁 돌봄’을 시작하며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제 식상한 구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호를 넘어, ‘내 아이가 저녁 7시에 어디서 누구와 따뜻한 밥을 먹고 있는가’에 대해 구청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이종석과 온동네돌봄연구회는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된 ‘저녁 돌봄과 식사가 결합된 서대문형 통합 돌봄 모델’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누구나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식당, 부모님이 죄책감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관행을 깨는 적극 행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발로 뛰어주신 김규진 대표의원님과 박경희 의원님,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대문형 온동네 돌봄의 실천적 이정표를 세우며

박경희 | 의원



온동네돌봄연구회와 함께한 지난 1년은 서대문구의 출산율 0.57명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돌봄이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행정 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의 일상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지를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지도상젊을 통해 수행된 연구용역은 서대문구 돌봄 지형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서대문구의 돌봄 인프라 총량은 서울시 평균 수준이지만 남가좌·북가좌 권역의 수요 과밀과 홍제·홍은 권역의 인프라 부족이라는 ‘권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행정동별 분석을 통해 홍제·홍은 권역이 인구 대비 서비스 다양성이 부족한 ‘공급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한 것은 향후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와 센터장 대상의 FGI(초점 집단면접)를 통해 확인한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의 저녁

돌봄 공백'은 행정이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할 가장 아픈 지점이었습니다. 이 시간대는 학교는 문을 닫고 부모들은 퇴근하기 전인 돌봄 공백 시간대입니다. 저는 이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서대문 어린이식당'의 확산에 주목하였습니다. 강동구 사례에서 보았듯이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거창한 시설 신설보다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동네 곳곳에 조성할 수 있는 어린이식당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구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38억 원의 데이케어센터 예산을 조금만 유연하게 운용한다면 아이들에게 따뜻한 저녁 한 끼와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을 19곳이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낙인효과 없이 보편적 돌봄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복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정책의 책임성 또한 제가 이번 활동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가치입니다. 돌봄은 시민의 선의에만 기대어서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제안된 기존 서틀버스를 돌봄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돌봄 셔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은 행정의 의지와 책임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특히 특수아동 돌봄과 같이 세밀한 손길이 필요한 영역은 교육지원청과의 밀접한 협의를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두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에서 확인했듯이 아이들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넓은 장에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주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운영의 체계성, 이용의 유연성, 재정의 실효성'이라는 3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서대문구만의 돌봄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온동네돌봄연구회의 활동은 끝이 아니라 서대문구 돌봄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대안들이 책상 위의 보고서로 남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저의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IV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5년 온동네돌봄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언론보도

주요 보도내용

이뉴스투데이 2025.08.24.

이뉴스투데이

HOME > 전국 > 수도권취재본부

서대문구의회 '온동네돌봄연구회', 아동 돌봄 공백 해소 본격 나서

✎ 권오경 기자 | ⓒ 승인 2025.08.24 09:25

| 학부모 목소리 담아 서대문 맞춤형 돌봄정책 연구 본격화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대문구의회 온동네돌봄연구회(대표의원 김규진)가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연구회 (온동네돌봄). [사진=서대문구의회]

연구회는 지난18일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대문구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 출신인 박경희 부의장이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번 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학부모 토론회에서 제기된 ‘초등 돌봄 공백 문제’를 계기로 출범했다.

당시 학부모들은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으로 인해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이를 정책 과제로 삼아 연구회가 구성됐다.

연구회의 주요 연구 목표는 △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학교·자치구·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 연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돌봄교실, 키움센터, 지역 내 다양한 공간과 학습 자원을 연계한 ‘온동네돌봄’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25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만 0세~18세 인구는 3만47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14.1%)이나 서울 평균(11.9%)보다 낮아, 젊은 세대의 정주와 경제활동 인구 유입을 위해 돌봄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 중구는 아동 돌봄정책 강화를 통해 인구 유입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서대문구의 ‘초등돌봄지원계획’은 키움센터 운영에 국한돼 있으며, 돌봄 시설 설치 역시 수요 기반이 아닌 공간 확보 중심으로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연구회는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돌봄 정책과 입법 과제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규진 대표의원은 “장기적으로 학교 안팎의 인프라를 모두 동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연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2025.08.25.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

HOME (/) > 로컬+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7) > 서울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86)

서대문구의회, 아동 돌봄 공백 해소 위한 '온동네돌봄연구회' 발족

윤 허인 기자 | 승인 2025.08.25 08:17

학부모 목소리 반영한 맞춤형 돌봄정책 연구 본격화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온동네돌봄연구회가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연구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학부모 토론회에서 제기된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공백 문제'를 정책 과제로 삼아 출범했다. 당시 학부모들은 “돌봄 부족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서대문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정책을 마련하고 입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 1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서대문구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 출신인 박경희 부의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연구회는 △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학교·자치구·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 연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았다. 특히 현재 서대문구의 ‘초등돌봄지원계획’이 키움센터 운영에 한정돼 있는 점, 돌봄시설이 수요 기반보다는 공간 확보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동네돌봄’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5년 7월 기준)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0~18세 인구는 34,775명으로 전체의 11.5%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14.1%)이나 서울 평균(11.9%)보다 낮은 수준으로, 젊은 세대의 정주와 인구 유입을 위해 돌봄정책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 중구가 아동 돌봄정책 강화를 통해 인구 유입에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김규진 대표의원은 “장기적으로 학교 안팎의 모든 인프라를 연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연구 활동을 통해 서대문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아동 돌봄 공백 해소 위한 '온동네돌봄연구회'

입력 : 2025-08-27 14:22 | 수정 : 2025-08-27 14:22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의원연구단체 온동네돌봄연구회가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의원연구단체 '온동네돌봄연구회'. 서대문구 제공

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학부모 토론회에서 제기된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공백 문제'를 정책 과제로 삼아 출범했다. 당시 학부모들은 "돌봄 부족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연구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 1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서대문구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 출신인 박경희 부의장도 참석했다.

연구회는 ▲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학교-자치구-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 연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았다.

김규진 대표의원은 "장기적으로 학교 안팎의 모든 인프라를 연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연구 활동을 통해 서대문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뉴스투데이 2025.12.10.

이뉴스투데이

HOME > 전국 > 수도권취재본부

김규진 서대문구의원, '온동네돌봄 정책 설계 간담회' 개최

✎ 권오경 기자 | ☎ 승인 2025.12.10 16:45

**교육은 백년지대계, 지역사회 함께 성장해야!
구청이 학교·지역 잇는 가교 역할해야...학부모 "실질적 네트워크" 요구**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역 내 교육공동체 역할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온동네돌봄 정책 설계를 위한 학부모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온동네 간담회 참석자들 모습. [사진=서대문구의회]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특별히 마련한 시간인 만큼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장을 역임한 박미향 전 센터장을 초청, '학부모와 지역의 협력적 교육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전 센터장은 "학부모는 학교와 지역을 잇는 연결자이자,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결하는 다리이다"며 "아이들을 둘러싼 문제는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 관련 이슈를 학부모와 공유하고, 건강한 논의가 촉발되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대문구청이 학교와 지역, 그리고 다양한 세대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초등학교부터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참여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서대문구 교육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학부모 워크숍에서 약속된 학교 예산 지원 체감도가 낮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과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육성된 학부모 동아리 등 인적 자원이 단절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동 반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지킴이'의 경우, 연령대가 높고 학교와 연계성이 부족해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워크숍 역시 단발성 행사에 그쳐 실질적인 의제 발굴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참석자들은 구청이 지속가능한 공론장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큰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규진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만큼, 아이들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공론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간담회가 열린 서대문행복이룸센터는 과거 여성이룸센터로 운영됐던 시설로, 현재 명칭 변경과 함께 새로운 역할을 모색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여성의 경력 회복과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5년 온동네돌봄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서대문구의회 온동네돌봄연구회